

북스

어린이 책꽂이



▲의사 아이볼리트=러시아 어린이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추프스키가 1936년에 쓴 동화로 낙천주의와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이 담겨있다.



▲나나의 어스런 영웅, 안톤=아버지에 대한 반항에서 화해까지 사춘기 소년들의 심리적 갈등과 방황을 통찰력 있게 그린 성장소설.



▲사자 림포포에게 배우는 성실=언제나 그늘에서 잠을 자며 게으름을 부리던 사자 림포포가 가족들에게 떠맡겼던 일을 스스로 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그린 동화.



▲핸드폰 악동=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필수품이 된 핸드폰을 소재로 올바른 핸드폰 사용에 대한 예절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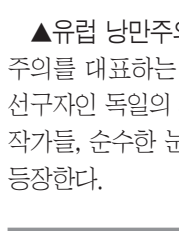
▲고양이를 부탁해=길을 잃은 고양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기억력을 키워주는 동화책이다.



▲나는 나의 주인=자신을 가치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아이는 세상을 가치있고 중요한 곳으로 대한다.



▲세상을 사로잡은 괴물 이야기=그리스 신화부터 각 나라의 전설과 설화,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에 까지 온갖 괴물이 등장한다.



▲유럽 낭만주의의 도래 : 괴테, 사드, 바이런=19세기 유럽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독일·프랑스·영국의 문학을 다뤘다.

인문학 시각으로 풀어본 '삶의 고민'

인문학 박물관에서

진중권 외 11인 지음



지난 2008년 중앙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학교 내에 문을 연 인문학박물관은 3000여 점의 인문 자료가 전시된 공간으로 한국 인문학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진중권·한홍구 등 한국의 대표 인문학자가 참여한 '인문학 박물관에서-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인문학자 12인의 육성'은 인문학박물관이 개관 후 첫 번째 작업으로 진행된 포럼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역사, 문화, 교육, 개인의 삶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본 학자들의 육성이 담긴 이 책은 어려운 학술 논쟁보다는 인문학자들의 경험과 사유를 들으면서 일반 청중들이 지

닌 삶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형식의 포럼이었다.

이 책의 미덕은 다소 무겁고 딱딱한 주제들을 조금은 쉽게 풀어냈다는 점이다. 딱딱한 이론도 등장하지만 인문학자들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 덕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찾아낸 풍부한 사례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인문학으로 세상보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책은 학자들이 두명씩 짝을 이뤄 각각의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미학자 진중권과 철학자 한홍구는 '우리 인문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논했다. 두 사람은 '수입용 보세 가공 수준'의 한국 인문학의 역사적 폄플렉스를 지적하고, 한국의 인문학이 창의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중문화 평론가인 김창남·이영미는 '대중문화와 인문학,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문화적인 변화, 문화적인 새로운 창조는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낯설게 보고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라고 반문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에 문화적 발전과 창조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진중권>



<한홍구>



<김창남>



<김중권>

이씨 역시 '창의적이지 못하고 뻔하다'는 말을 듣는 대중문화의 핵심은 작가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느끼는 재미임을 강조하며 이 재미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한다.

역사학자 한홍구와 전재호는 '근대적 이념의 도입이 우리 사유의 형성에 끼친 영향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근대 이념들이 숙성되지 않은 채 서둘러 좋은 것으로만 인식돼 우리에게 오히려 '폭력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자본과 권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회에서 인문학이 갖는 비판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

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밖에 김정인(춘천교육대 교수) 김한중(한국교원대 교수)씨가 '근대적 학제의 도입과 우리 문화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김동준(성공회대 교수)씨와 김영일(한국학중앙연구원 전공교수)씨는 '근대화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승철('노동자의 책' 공동대표) 우기동(경희대 교수)씨가 이야기를 나눴다.

<인문과 사상사·1만4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학창시절 아주 특별한 수업 풍경

수업

강진세 외 17인 지음



"지금도 나는 그 교실이 그리다. 막막한 백지를 앞에 놓고 필필에 빠질 때마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캄캄한 밤길에 성냥 한 개비 켜서 한 발자국 걷고 또 성냥 한 개비 켜서 한 발자국 걷는 심정을 글로 쓰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던 선생님의 말씀처럼 성냥 불빛이 꺼질 때마다 나는 그때 그 시절의 신랄했던 내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진다..."(소설가 서진연의 '겨자나 와사비나' 중에서)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이들은 크고 작은 수업에서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풍부한 문인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힘들고 막막할 때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소설가와 시인 18명의 글을 묶은 에세이집 '수업'은 학창시절 기억의 창고에서 한순간, 섬광처럼 번쩍였던 수업이야기를 전한다. '내 생애 가장 특별한 수업'이란 타이틀로 꾸민 제1부는 10명의 문인들이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풍경을 그리고 있다.

2부 '열여덟 살의 문학 수업'에서는 김용택의 '열떨결의 첫 만남' 등 8명 작가들의 문학 수업 이야기가 실려 있다.

<황소북스·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뒤로가는 한국 민주주의 비판서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김상봉 외 11인 지음



반세기여 걸친 민주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는가'하는 물음과 통한다.

오마이뉴스와 휴머니스트출판사가 지난해 11~12월 공동으로 진행했던 민주주의 특강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의 내용을 엮어 동일한 이름으로 출간했다.

김상봉(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충철(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한호(성공회대 초빙교수), 도정일(경희대 명예교수), 박명림(연세대 교수),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정희진(성공회대 강사), 진중권(미학자),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등 12명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공공의 정치' '소수자의 위상' '학벌사회' 등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이들은 2010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법·언론·과학 등 각 분야별 리더 내세워 세계를 향한 사유와 행동을 제안했다.

각 장의 말미에 특강에 참여한 청중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한국 민주주의를 묻고 답한다'도 실어 생생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휴머니스트·1만7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단 50년 시인이 쓴 에세이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마중기 지음



등단 50년을 넘긴 마중기 시인이 최근 열두 번째 시집 '하늘의 맨살'(문학과지서상 펴냄)을 낸 데 이어 자신의 시 중 50편을 고르고, 각각에 얽힌 사연을 수록한 시집 에세이집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를 출간했다.

시인이 의과대학 1학년 시절 낸 첫 시집 '조용한 개선'에 실린 시부터 2006년 출간한 시집 '우리는 서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에 수록된 작품이 골고루 소개됐다.

"시는 내게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하늘이었고 무조건적인 이해심이자 배움이였다"라고 말하는 시인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근무했을 당시 처음 해부용 시체를 마주하고 느낀 삶과 죽음의 경계, 장남이 패셔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임종, 이민 생활을 함께 견디며 살다 무장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동생을 향한 그리움 등을 시와 함께 전한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시인은 서문에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피해 늘 지혜로운 내 조국에 오래 다져온 사랑과 그리움으로 이 책을 바친다"고 고백했다.

이희중·정필범·권혁웅·이병률 등 시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 시인들이 마중기 시인을 생각하며 쓴 글도 함께 실렸다.

<비제·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FAX)223-1772 TEL 011-602-253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르니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열쇠
062-383-8982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한
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태양광부지 구합
나대지.
• 서구 샘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공판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가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식당. 전원주택.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역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요원. 조망양호.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 광산구 산월동 보현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농장. 주말주택.
• 나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 나주 왕곡면소재지 부근 7,410㎡ 3.3㎡당 35,000원. 계획. 생산관리지역.
• 나주 봉황면 각동리 4,098㎡. 3.3㎡당 48,000원. 계획. 생산관리지역.
• 영암 군서 양정리 19,098㎡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 영암 덕진 영보리 14,414㎡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식당. 사옥.
• 서구 마곡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87㎡. 연면적(2층)400.2㎡. 매가가 11억.
• 서구 봉성동 구 라안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가가 11억.
전원주택.
• 북구 화양동 대지433㎡. 전임1,994㎡ 구 주택2동. 매가가 1억 8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김영희
062)364-8700
H. P. 010-4608-3700
▶아파트
지역/소매지/건물/면적/평/건평/가/최저가/비고
▶근린상가
지역/소매지/건물/면적/평/건평/가/최저가/비고
▶근린주택
지역/소매지/대지/건물/면적/평/건평/가/최저가/비고
▶월세/빌라/다세대/오피스텔
지역/소매지/명칭/면적/평/건평/가/최저가
▶상가주택
지역/소매지/대지/건물/면적/평/건평/가/최저가/비고
▶토지(전/답/임야/대지)
지역/소매지/면적/평/건평/가/최저가
▶추천물건
북구 팔봉동 일남삼거리 4층건물
대지 162원 연건면적 482원 건평 1219원 116원
최저가 3억 6천 7백 (원. 동. 도. 양. 면. 비. 고. 호. 관. 조)
위치 : 서남삼거리. 광주은행빌딩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맞은편 대문빌
6층상가건물 상권이주출용.
대지 465원. 연건면적 1494원. 연면적 2011원 160원
건평 409원 254원 44원 최저가 1841원 160원
보증금 5억. 월임대료 1천 7백 수익률확실